

목포시 '상습 침수 도시' 오명 벗는다

상동 빗물저장시설 펌프 시운전 돌입...하루 2만2000㎡ 처리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7월 준공 등 하수도 시설 대대적 확충

목포시가 침수예방과 효율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수년 동안 펼쳐온 대형 사업들이 잇따라 준공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목포시 상하수도사업단에 따르면 상동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목포의 대표적인 상습 침수지역인 상동 버스터미널 앞 침수 방지를 위한 상동 초기 우수시설 설치사업(빗물 저장시설)은 통합운영센터 구축을 마치고 이달 말부터 펌프 시운전에 들어간다.

지난 2013년 4월 착공돼 5년 만에 완공되는 이 시설은 1만㎡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류조가 핵심으로, 사업비 156억(국비 109억, 시비 46억8000만원)이 투입됐다.

저류조 지상에는 농구와 배드민턴 코트 각 1면, 운동기구 10개 등 시민들의 체육공간이 조성됐다.

다음 달 빗물 저장시설이 완공되면 기습 폭우로 인한 버스터미널 인근 저지대의 침

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옥암·남악 신도시 인구유입 증가로 배출되는 하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동안 증설을 추진해 온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도 막바지 공정이 한창이다.

지난 2015년 시작된 이 사업에는 총 296억5600만원(목포시 129억, 전남개발공사 166억)이 투입돼 오는 7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처리용량 기준 1일 1만2000㎡에서 2만2000㎡로 늘어난다.

이어 북항 하수종말처리장의 질소·인 등을 처리해 방류수 수질 기준에 부합하고 공공수역 수질예방을 위한 고도처리 설치 사업도 순조롭다.

총 사업비 106억원이 투입돼 1일 3만 5000㎡를 처리하게 되는 이 사업은 지난 2014년 시작돼 오는 6월부터 시험가동을 거쳐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 황용규 목포시 하수과장은 "이들 사업들이 상반기 중으로 모두 마무리되면 효율적인 하수처리는 물론 상하수



1만㎡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상동 빗물저장시설이 지난 2013년 시작된 지 5년 만에 완공돼 기습 폭우로 인한 버스터미널 인근 저지대의 침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동 빗물저장시설 드론 촬영. <목포시 제공>

도 관련 민원들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침수 예방 등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목포시 하수과는 지난 3월 주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하수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이달 들어 총 사업비 1억여 원을

긴급 투입해 관해마을 하수관로 120m를 정비하고 예메랄드 린 옆 우수관로 60m를 교체한데 이어 북항동 차관주택 주변 하수관로 8800m와 연동 대하수도 무지개세탁소 주변 323m를 준설하는 등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도 발 빠르게 대처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낭만항구 목포' 버스킹 40개 팀 선발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공연

'낭만항구 목포'의 추억을 선사할 버스킹 공연이 본격화 된다.

목포시에 따르면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노적봉 예술공원 야외무대를 비롯해 북항 노을공원, 평화광장 등에서 버스킹 상설 공연이 펼쳐진다.

이를 위해 목포시 문화예술과는 지난 3월 버스킹 출연자 모집공고를 내고 최근 선발을 마쳤다.

이번 모집에는 목포 56개 팀과 타 지역 16개 팀 등 총 72개 팀이 참여해 노래, 밴드, 국악, 미술, 댄스 등 분야별 최종 40개 팀을 선발했다.

선발된 40개 팀은 지난 20일 오후 2시 노적봉 예술공원 야외무대에서 색소폰과 노래, 밴드 등 '낭만항구 목포' 버스킹 첫 선을 보였다.

또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지난 22일부터 오는 12월 12일까지 48주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문화교실은 캘리그래피(월), 유화(화), 통기타(목), 꽃차소믈리에(금) 등 4개 과목으로 수강인원은 과목당 30명이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2시간 동안 노적봉 예술공원 야외무대를 비롯해 북항 노을공원, 평화광장 등에서 버스킹 상설 공연이 펼쳐진다. 사진은 버스킹 공연 첫번째로 펼쳐진 색소폰 연주 모습. /목포=임영춘 기자 lyc@

목포시, 유치 기업 물류비·직원 정착금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목포시가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 물류비를 지원하고 이주 직원에 대해서는 정착금을 지원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목포시에 따르면 앞으로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투자완료일 기준)이고 상시 고용 인원이 5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 물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물류 보조금은 육상운송 비용의 30% 범위 안에서 연간 5000만원까지, 최초로 보조받은 날부터 5년동안 지원한다는 계획

이다.

또 목포시는 직원이 목포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정착금으로 1회에 한해 근로자만 이주한 경우 100만원, 근로자와 함께 이주한 가족세대원 1인당 100만원(총 500만원 한도)의 정착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의숙 목포시 기업유치실장은 "물류비와 직원이주 정착금 지원은 타

지역에 비해 수도권과 접근성이 낮은 지리적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목포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3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목포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10일

업무량 폭증...예산·인력 지원 잇단 호소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지난 17일 시행된 이후 신고 건수가 늘면서 일선 지자체에선 업무량이 급증해 인력 충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목포시의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지난 10일 동안 총 195건(26일 현재)이 접수돼 하루 평균 20건이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목포시 교통행정과에 따르면 이달 17일~26일까지 단속건수가 지난해에는 164건이었으나 올해는 477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기존에 운영돼오던 '생활불편 신고' 앱에 '안전신문고' 앱이 새로 생겨 난데다가 경찰이 운영하는 '스마트국민제보'까지 더해져 사실상 '멘붕'에 빠진 상황이라는 게 일선 교통지도계의 하소연이다.

업무처리를 위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민원인과의 마찰도 잦기 때문이다.

그나마 지금은 제도 시행 초기여서 대다수 시민들이 모른 상황이지만 앞으로 몇 개월 후면 주민들의 신고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예산·인력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 충분한 계도기간 없이 급히 제도가 시행되면서 소화전 등 시설개선이 제대로 안 돼 곳곳에서 민원이 제기되

거나 마찰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해 직원이 수작업을 통해 일일이 확인을 거쳐야하고 또 다시 신고자에게 답변(결과 통보)을 해주어야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전남도에 인력 충원을 긴급 요청했지만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해 준다는 답변을 받아 딜레마에 빠졌다.

업무 특성상 신고자는 물론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개인정보(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고소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 접근권한이 없어 업무를 맡길 수 없다는 게 이유이다.

여기에도 기존의 주정차 단속 주요 업무인 고정식 단속 카메라와 이동 차량 카메라 단속도 매일매일 체크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하기 때문에 일선 교통지도계의 과부하 해소를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주민신고제는 시민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소화전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에 대해 불법 주·정차 위반사항을 신고,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북항 일대 불친절·바가지요금 근절 총력

목포시가 '불친절과의 전쟁'에 나섰다.

목포시는 최근 맛의 도시 선포와 천사대교 개통으로 북항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바가지요금과 불친절 행위가 근절이 안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강력한 지도단속과 함께 특별 홍보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목포시와 북항 상인들에 따르면 관광 버스가 평일에는 10~15대, 토요일에는 40~50대가 방문해 북항 일대가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다.

이처럼 북항 회타운 개장 이래 최대 인파가 몰려들면서 그동안 우려했던 고객행위와 불친절 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어 비상이 걸렸다.

이에 목포시 보건소는 북항 회센터 상인회 별 순회 간담회를 실시하고 관광객 이용 전 업소를 대상으로 암행단속과 공휴일에도 홍보계도차량을 운영하는 등 강력한 지도단속에 나섰다.

또 탈분이고 실천이 되지 않는다는 여

론에 따라 '호객행위·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각서'를 징구하는 강력한 카드도 내렸다.

현재 북항 회센터 122개 업소 가운데 90개소가 서명했다. 목포사랑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자치행정과까지 나서 다음달 3일 북항 상인들을 대상으로 특별 홍보활동을 펼친다.

이날 홍보활동에는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자생조직을 비롯해 자치행정과, 교통행정과, 보건위생과, 북항동북지센터 등 100여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업소를 직접 방문해 호객행위 금지,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손님맞이 하기, 바가지요금 받지 않기 등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치행정과는 주부명예기자단을 활용해 30일 '목포사랑운동 모니터링단'을 구성한 뒤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한국형 연금 발전소 분양 (태양)

A 타입 식용달팽이 사육장(건물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B 타입 미래형 100KW 550만원(예상) **최단 2년6개월 자금회수가능**
현금투자대비(년 40% 수익가능)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개발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87-8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에너지관리공단 80% 용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농협 2018. 5. 1. 대통령령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전·답 가능)

한전과 20년 장기 계약 안정적 투자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부지 매입합니다(전·답가능)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지!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전국대표 ☎ 1588-1543 · 010-3645-1479